

전 세계 4억 2천명을 사로잡은 어린이 호러 문학
진흙 괴물의 잔혹한 복수가 시작된다!

구지벌스[®]
시리즈



16 진흙 괴물의 복수 R.L. 스타인 지음 · 전명진 그림/이혜인 옮김

* 2015.9.21. 발행/ 140x205mm/ 무선제책/ 8,500원/ ISBN 978-89-6548-180-5 74840



비룡소의 색다른 상상력 브랜드

보름달 뜬 깊은 밤, 진흙에서 솟아난 검은 그림자 전설 속 괴물이 드디어 깨어났다!

** 미국국립교육협회 어린이 선정도서

** 니켈로데온 키즈 초이스 어워드(Nickelodeon Kids' Choice Awards)

전 세계 32개국, 4억 2천만 어린이가 읽은 베스트셀러 시리즈 구스범스. 세계 어린이에 이어 우리나라 어린이에게도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구스범스의 열여섯 번째 책, 『16. 진흙 괴물의 복수』가 출간되었다.

이번 16권에는 사라진 줄 알았던 전설 속 신비한 괴물이 등장한다. 전설 속 괴물의 대표로 꼽히는 공룡을 닮은 '네시', 네안데르탈인의 모습을 한 설인 '예티' 등은 공식적으로 '이 세상에 없는 생명체'이지만 여전히 그 존재 여부를 두고 많은 사람들의 호기심을 받고 있다. 코모도 도마뱀, 실러캔스, 대왕오징어 등은 실존하는 동물이지만, 발견되기 전엔 전설 속 괴물로 치부되었다. 그렇게 보면 전설 속 괴물들은 사람의 손길이 미치지 않는 깊은 자연 속에 숨어 있을 뿐인지도 모른다.

주인공 에디의 마을에도 유명한 진흙 괴물 전설이 있다. 일 년에 한 번, 보름달이 뜨는 깊은 밤 진흙 무덤에서 깨어나 마을 사람들을 제물로 삼는 무시무시한 괴물에 관한 이야기. 이 오래된 전설을 아직까지도 믿는 아이들은 거의 없다. 하지만 그렇게 쉽게 괴물이 없다고 단언해도 되는 걸까?

괴물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고 함부로 말하지 말라! 어둠 저편, 눈을 번뜩이며 당신을 노리고 있을지 모른다.

차별 받고 소외된 아이의 분노가 불러낸 괴물! 복수는 더 큰 복수를 낳는다.

똑똑하고 용감해 항상 자신만만한 코트니는 걸핏하면 에디를 겁쟁이 바보로 만들어 다른 아이들 앞에서 창피를 준다. 또래 집단에서 배척당하고 소외되는 것은 아이들에게 가장 끔찍한 체험이다. 계속되는 망신과 조롱에 에디의 마음속엔 섬뜩한 복수심이 떠오른다.

에디는 결국 진흙 괴물 전설을 이용해 코트니를 골탕 먹이기로 한다. 전설에 따르면 아주 오랜 옛날, 돈 많은 마을 사람들에게 차별 받고 소외되어 억울한 죽임을 당한 가난한 오두막촌 사람들이 보름달 뜬 밤이면 진흙 무덤에서 깨어나 땅속으로 끌고 들어갈 먹잇감을 찾아 나선다고 한다.

드디어 보름달 뜬 깊은 밤, 에디는 어두운 숲 속으로 코트니를 불러낸다. 이제 괴물 분장을 한 형과 형 친구들이 코트니를 놀래 주면 끝이다! 서서히 진흙 속에서 기어 나오는 검은 형체. 끈적끈적 비틀어진 몸, 일그러진 얼굴, 먹이를 찾는 끔찍한 신음 소리……. 코트니에게 진흙 괴물이 덤벼들길 기다리는 순간, 또 다른 진흙 괴물들이 나타나 에디의 뒤를 가로 막아선다!

철썩, 철썩. 점점 더 가까이 다가오는 진흙 괴물의 그림자. 그리고 끊임없이 솟아나는 거무칙칙한 몸뚱이들. 코트니의 놀림 때문에 친구들의 조롱을 받아야 했던 에디의 분노는 돈 많은 사람들에게 무시와 차별을 받던 오두막촌 사람들의 분노와 만나 이 세상을 삼켜 버릴 듯 걸잡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이제 에디의 목숨마저 위협하다!

에디는 이 믿기 힘든 괴물의 복수극에서 무사할 수 있을 것인가? 이는 에디의 선부른 복수심이 불러온 끔찍한 재앙은 아닐까?

● [시리즈 소개] 구스범스 시리즈

전 세계 32개국, 4억 2천만 어린이가 읽은 초대형 베스트셀러.

구스범스 01. 목각 인형의 웃음소리 소윤경 그림 · 노은정 옮김

걸걸하고 기분 나쁜 목소리, 뚫어질 듯 쳐다보는 눈빛, 방 안을 돌아다니는 시커먼 그림자. 과연 인형의 정체는?

구스범스 02. 가면의 복수 오윤화 그림 · 고정아 옮김

친구들로부터 늘 겁쟁이라고 놀림 받는 칼리. 핏빛 날 끔찍하고 무서운 가면을 쓰고 친구들에게 복수하기로 결심하는데…….

구스범스 03. 빈집의 숨바꼭질 조원희 그림 · 노은정 옮김

아만다는 자꾸만 집 안에서 어린아이의 발소리와 웃음소리를 듣는다. 누군가 이 집에 살고 있는 걸까?

구스범스 04. 여름 캠프의 악몽 조승연 그림 · 고정아 옮김

여름 방학을 맞은 빌리는 캠프장으로 가는 버스에 올라탄다. 무성한 숲 한가운데 캠프장. 친구들이 하나씩 사라지기 시작하는데…….

구스범스 05. 악령을 부르는 머리 허구 그림 · 고정아 옮김

과학자 베라 이모가 보낸 괴기스러운 머리와 정글로 오라는 초대장. 무시무시한 정글에서 악령을 부르는 머리가 빛나기 시작한다.

구스범스 06. 미라의 저주 홍정선 그림 · 노은정 옮김

신날 줄만 알았던 피라미드 탐험. 하지만 삼시간에 공포의 탐험으로 바뀌고 만다.

구스범스 07. 늑대인간의 울음소리 허구 그림 · 고정아 옮김

하나씩 늘어나는 동물의 시체, 갑자기 나타난 늑대를 닮은 개, 그리고 짐승을 닮은 숲 속 남자. 과연 늑대인간은 누굴까?

구스범스 08. 저주 받은 학예회 나오미양 그림 · 노은정 옮김

70년 전 주인공이 사라져 버린 연극. 그 저주 받은 공연이 다시 시작된다.

구스범스 09. 악마의 통조림 이영림 그림 · 이원경 옮김

장난감 가게에서 발견한 통조림. 그 속에 든 것이 내 방을 통째로 집어삼키기 시작하는데…….

구스범스 10. 눈사람을 조심해 이경국 그림 · 이원경 옮김

눈 덮인 산에 절대 올라가선 안 된다는 사람들. 도대체 뭐가 있기에…….

구스범스 11. 찰칵! 금지된 카메라 김상인 그림 · 이원경 옮김

낡은 저택 지하실에서 카메라를 발견한 그레그. 이 카메라에 무슨 저주가 걸려 있는 걸까?

구스범스 12. 싱크대 밑의 눈 정지혜 그림 · 이원경 옮김

어두컴컴한 싱크대 밑, 무언가 살아 있다! 새까만 두 눈, 고동치는 심장, 소름끼치는 웃음소리……. 놈은 대체 뭘까?

구스범스 13. 투명인간의 저주 임경섭 그림 · 이혜인 옮김

정체를 알 수 없는 목소리, 초자연적인 사건이 계속된다.

구스범스 14. 호러랜드의 비밀 경하 그림 · 이원경 옮김

숨통을 조이는 놀이 기구. 멈춰, 제발 멈추라고!

구스범스 15. 검은바다의 악몽 이희은 그림 노은정 옮김
깊고 깊은 검은 바다. 그곳에 살고 있는 괴생물체는?

구스범스 16. 진흙 괴물의 복수 전명진 그림 이해인 옮김
보름달 뜬 깊은 밤, 진흙에서 깨어난 검은 그림자가 다가온다.

* 구스범스 시리즈는 계속 출간됩니다.

● 작가 소개

지은이 R. L. 스타인

“제 직업은 어린이에게 오싹함을 선물하는 것이죠!”

전 세계 아이들의 열광적인 사랑을 받는 어린이 책 작가. 밖에 나가 노는 걸 싫어했던 스타인은 9살 무렵 타자기를 가지고 놀면서 이야기를 짓기 시작하여 재미있는 유머책을 써 냈다. 어른이 된 뒤 어린이를 위한 유머책과 잡지를 만들고 출판사를 운영했던 스타인은, 공포소설 「공포의 거리」시리즈를 쓰면서 작가로서 이름이 알려지기 시작했다.

1992년 「구스범스」시리즈가 출간되면서 스타인은 전 세계 32개국에 널리 알려진 스타 작가가 되었다. 「구스범스」시리즈는 지난 30여 년 동안 100권이 넘게 출간되었고, 미국에서 TV 시리즈로 제작돼 3년 동안 방송되었다. 「구스범스」시리즈는 2001년과 2003년에는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린 어린이 책으로 기네스북에 올랐으며, 현재는 「해리 포터」시리즈 다음으로 가장 많이 팔린 어린이 책으로 꼽힌다.

www.rlstine.com

그린이 전명진

SI 그림책 학교에서 그림을 공부하고 일러스트레이터로 활동하고 있다. 쓰고 그린 책 『달집태우기』로 ‘제4회 앤서니 브라운 & 한나 바르톨린 그림책 공모전’에서 최우수상을 받았다.

옮긴이 이해인

이화여자대학교에서 국어국문학을 공부했다. 지금은 어린이 청소년 책을 기획, 번역하고 있다. 옮긴 책으로는 『구스범스13. 투명인간의 저주』, 『올리브 과수원을 지키는 소년』이 있다.

편집 담당 유지민(내선 311)
홍보 담당 황수연(내선 310)
마케팅 담당 박병국(내선 237)